

혁신제약식품

양배추 잔류농약 분석용 표준물질

- 특허명 : 안정성 및 균질성이 향상된 양배추 시료의 농약 다성분 표준분석물질 및 그 제조 방법 (10-2016-0102412)
- 보유기관 : 안전성평가연구소
- 상태정보 : 출원 '16.08.11 > 공개 '18.02.21 > 등록 '18.04.12
- 기타정보 : 관련특허 총 2건, 국내 최초 잔류농약분야 GLP인증(16.11)



기술개요

- 국내 최초 잔류농약분석(GLP) 체계 확립 및 농약 다(多)성분 동시분석법 개발
- 양배추 시료의 농약 다(多)성분 분석표준물 개발

기존 문제점

- 농산물 내 농약 잔류분석 및 평가기관별 신뢰성 및 일관성 미확보
- 단일성분 위주의 표준분석물질에서 최근 다성분 분석 필요성과 중요성 증가
- 양배추 특화 평가 및 분석법 부재



기술 차별점

- 양배추 시료 특화된 균질성과 안정성 확보 및 낮은 수분함량
- 양배추 농약 다성분 정도관리용 표준분석물질 (CRM)과 분석법 확립
- 잔류농약 평가 숙련도 시험에 유용

세부내용

- 수확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극히 미량의 잔류농약을 분석
- 양배추와 풋고추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 10종이 균질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제
- 국제 표준인 ISO 기준에서 요구하는 균질성 기준에 적합하며 초저온 보관조건(-80℃)에서 최대 234일 동안 안정성 유지



- 안전성평가연구소 유병아(042-610-8128, brenda@kitox.re.kr)
- 공동마케팅사무국 박정남(042-862-6014, pjn77@wips.co.kr)